

해 외 직 접 투 자 동 향 분 석

(2013년 1/4분기)

2013. 5. 10.

해 외 경 제 연 구 소 산 업 투 자 조 사 실

해 외 투 자 분 석 팀

목 차

요 약	Ⅱ
Ⅰ. 개 요	1
Ⅱ. 지역별 동향	2
Ⅲ. 업종별 동향	6
Ⅳ. 투자기업 규모별 동향	9
Ⅴ. 기 타	10

< 요약 >

□ 2013. 1/4분기 총 해외직접투자(실행기준)는 전년동기 대비 11.8% 감소, 전분기 대비 2.7% 감소한 54.1억 달러 실현

- 지역별로는 아시아, 북미와 유럽, 업종별로는 제조업, 광업과 도매 및 소매업 중심 투자

【 지역별 】

□ 주요 지역 중 아시아와 중남미는 감소한 반면, 북미와 유럽은 전년동기 대비 큰 폭 증가

- 아시아와 중남미는 각각 -26.1%, -47.8%의 감소를 보인 반면, 북미와 유럽은 각각 76.3%, 71.6% 대폭 증가

※ 아시아(23.6억 달러), 북미(11.6억 달러), 유럽(10.0억 달러), 중남미(4.0억 달러)

【 업종별 】

□ 주요 업종인 제조업과 광업이 감소를 보여 전체적인 감소세를 이끄는 가운데, 도매 및 소매업, 금융 및 보험업,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사업은 증가

- 제조업과 광업 투자는 각각 -27.8%, -20.0%로 감소하였으며, 비중은 각각 35.2%, 22.0%임
- 광업은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(7.5억 달러)가 전년동기 대비 38.8% 감소

※ 제조업(19.0억 달러), 광업(11.9억 달러), 도매 및 소매업(7.2억 달러), 금융 및 보험업(6.6억 달러)

【 투자기업규모별 】

□ 전년동기 대비 대기업 투자비중 감소세

- 대기업의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17.1% 감소로 그 비중이 전년 동기 83.0%에서 78.0%로 축소

【 투자규모별/지분율별 】

□ 1억 달러 초과의 대규모 투자비중 전년동기 대비 소폭 증가

- 금분기 대규모 투자비중은 전체의 43.3%를 차지하여 전년동기 42.5% 대비 증가

□ 지분율 100%인 투자금액 비중 전년동기 대비 감소

- 한국측 지분율이 100%인 투자금액의 비중은 전년동기 77.6%에서 금분기 75.6%로 소폭 감소

I. 개 요

- 2013. 1/4분기 중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동기 61.3억 달러 대비 11.8% 감소, 전분기 55.6억 달러 대비 2.7% 감소한 54.1억 달러, 신규법인수는 전년동기의 594개에서 9.6% 증가, 전분기의 569개에서 14.4% 증가한 651개를 시현
- 지역별로는 전년동기 대비 북미와 유럽이 각각 76.3%, 71.6% 증가를 보인 반면, 아시아는 26.1% 감소, 주요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광업이 각각 27.8%, 20.0% 감소를 기록

<표 1>

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	2011		2012		2012. 1/4		2012. 4/4		2013. 1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전체 (증가율)	26,491 8.7%	2,760 -4.4%	23,164 -12.6%	2,471 -10.5%	6,130 -2.8%	594 -13.7%	5,558 -19.9%	569 -6.6%	5,408 -11.8%	651 9.6%

* 증감율은 전년동기 대비임.

- 금분기 지역별 투자비중은 아시아(43.6%), 북미(21.5%), 유럽(18.4%), 중남미(7.3%) 순이며, 업종별은 제조업(35.2%), 광업(22.0%), 도매 및 소매업(13.3%), 금융 및 보험업(12.2%) 순

<그림 1>

최근 5분기 해외직접투자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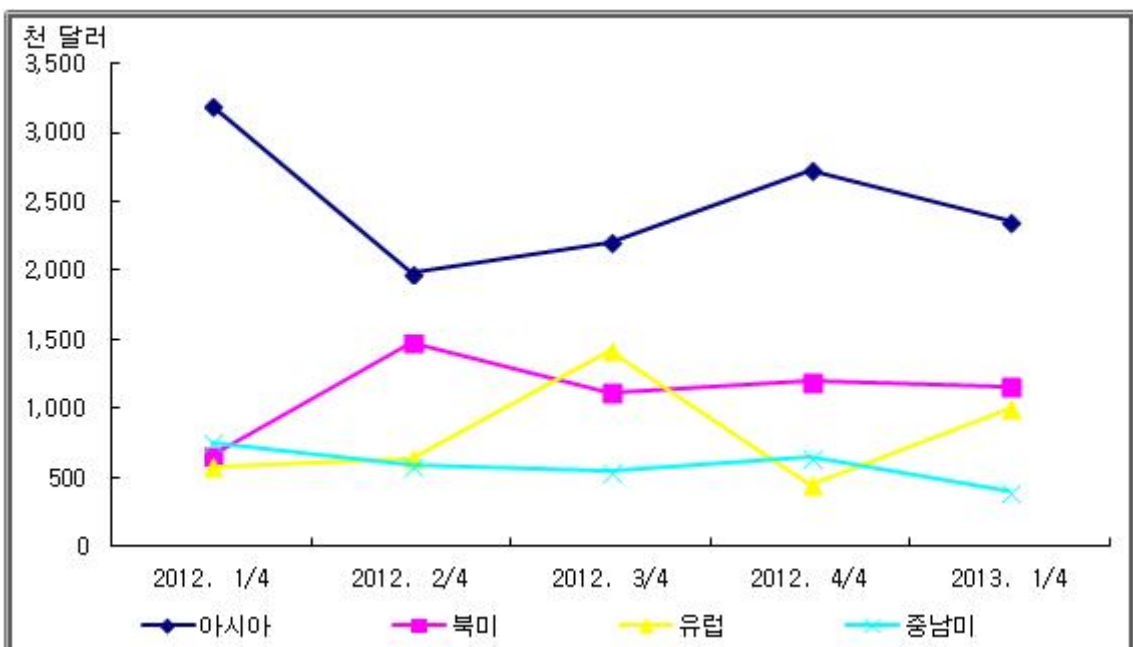
- ※ 금분기 투자 상위 국가(억 달러) :
미국(11.0), 중국(9.3), 네덜란드(6.6), 일본(3.7), 호주(2.8)
- ※ 금분기 투자 상위 투자자(억 달러) :
A사 (4.4), B사 (3.8), C사 (3.2), D사 (3.2), E사 (2.8)
- ※ 금분기 투자 상위 현지법인(억 달러) :
D사 미국 현지법인 (3.2)
E사 일본 현지법인 (2.8)
F사 네덜란드 현지법인 (2.8)
B사 중국 현지법인 (2.3)
A사 호주 현지법인 (2.3)

II. 지역별 동향

1. 개관

-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이 전년동기 대비 26.1% 감소한 반면, 북미와 유럽은 각각 76.3%, 71.6%의 대폭 증가를 보임

<그림 2> 주요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



- 지역별 투자비중은 아시아 43.6%, 북미 21.5%, 유럽 18.4% 순이며, 상위 3개 지역에 대한 투자비중이 전체의 83.5% 차지
 - 전년 동기의 경우 아시아, 북미, 유럽이 각각 52.1%, 10.7%, 9.5의 투자비중을 보이며 전체의 72.3% 차지
- 국가별로 아시아에서는 중국(9.3억 달러), 일본(3.7억 달러), 북미는 미국(11.0억 달러), 유럽은 네덜란드(6.6억 달러), 중남미는 브라질(1.8억 달러)에서 두드러진 투자 실현
- 업종별로 아시아는 제조업(13.5억 달러)과 도매 및 소매업(4.1억 달러), 북미는 광업(3.8억 달러)과 도매 및 소매업(2.4억 달러), 유럽은 금융 및 보험업(4.6억 달러)과 제조업(2.3억 달러), 중남미 제조업(2.2억 달러) 중심으로 투자

<표 2>

주요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	2010		2011		2012		2012. 1/4		2013. 1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아시아	10,066	1,934	11,076	1,859	10,114	1,677	3,192	395	2,358	440
(비중)	41.3%	67.0%	41.8%	67.4%	43.7%	67.9%	52.1%	66.5%	43.6%	67.6%
(증가율)	48.7%	22.4%	10.0%	-3.9%	-8.7%	-9.8%	89.2%	-11.2%	-26.1%	11.4%
북미	4,624	552	7,266	467	4,449	470	659	113	1,162	121
(비중)	19.0%	19.1%	27.4%	16.9%	19.2%	19.0%	10.7%	19.0%	21.5%	18.6%
(증가율)	-22.9%	3.0%	57.1%	-15.4%	-38.8%	0.6%	-65.4%	-11.0%	76.3%	7.1%
유럽	6,121	154	3,650	155	3,070	122	580	33	995	35
(비중)	25.1%	5.3%	13.8%	5.6%	13.3%	4.9%	9.5%	5.6%	18.4%	5.4%
(증가율)	14.9%	17.6%	-40.4%	0.6%	-15.9%	-21.3%	-62.5%	-13.2%	71.6%	6.1%
중남미	2,137	94	2,340	110	2,534	92	757	25	395	22
(비중)	8.8%	3.3%	8.8%	4.0%	10.9%	3.7%	12.3%	4.2%	7.3%	3.4%
(증가율)	105.3%	5.6%	9.5%	17.0%	8.3%	-16.4%	58.6%	-21.9%	-47.8%	-12.0%

* 증감율은 전년동기 대비임.

2. 지역별 동향

가. 아시아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26.1% 감소한 23.6억 달러, 신규법인수는 11.4% 증가한 440개 기록
- 국가별로는 중국(9.3억 달러, 비중 39.3%), 일본(3.7억 달러), 싱가포르(2.2억 달러), 베트남(1.8억 달러), 미얀마(1.5억 달러) 순
 - 아시아 투자액 중 중국 투자비중 : '09년 32.2%, '10년 36.1%, '11년 33.2%, '12. 3/4분기 38.1%, '12. 4/4분기 34.2%

- 업종별로 제조업(13.5억 달러, 비중 57.2%), 도매 및 소매업(4.1억 달러), 광업(1.9억 달러)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1.3억 달러), 금융 및 보험업(0.8억 달러) 순
- 아시아 투자액 중 제조업 투자비중 : '09년 40.5%, '10년 53.2%, '11년 52.3%, '12. 3/4분기 44.3%, '12. 4/4분기 44.0%
- 주요 투자 사업
 - E사의 일본 도매 및 소매업 투자 : 2.8억 달러
 - B사의 중국 제조업 투자 : 2.3억 달러
 - G사의 싱가포르 제조업 투자 : 1.7억 달러

나. 북미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76.3% 증가한 11.6억 달러, 신규법인수는 7.1% 증가한 121개 기록
- 국가별로는 미국(11.0억 달러), 캐나다(0.6억 달러) 순
- 업종별로는 광업(3.8억 달러, 비중 32.5%), 도매 및 소매업(2.4억 달러, 비중 21.1%),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(1.7억 달러), 금융 및 보험업(1.2억 달러), 제조업(1.0억 달러) 순으로 투자
- 북미 광업 투자비중 : '09년 50.3%, '10년 28.2%, '11년 43.9%, '12. 3/4분기 34.7%, '12. 4/4분기 55.8%
- 북미 도매 및 소매업 투자비중 : '09년 14.1%, '10년 9.1%, '11년 15.8%, '12. 3/4분기 14.6%, '12. 4/4분기 4.4%
- 주요 투자 사업
 - D사의 미국 광업 투자 : 3.2억 달러
 - H사의 미국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투자 : 1.7억 달러
 - B사의 미국 도매 및 소매업 투자 : 1.5억 달러

다. 유럽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71.6% 증가한 9.9억 달러, 신규법인수는 6.1% 증가한 35개 기록
- 국가별로는 네덜란드(6.6억 달러), 터키와 영국(각각 0.6억 달러), 체코(0.5억 달러), 사이프러스(0.4억 달러) 순으로 투자

- 업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(4.6억 달러, 비중 45.8%), 제조업(2.3억 달러, 비중 22.6%),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사업(1.2억 달러), 광업(1.0억 달러), 도매 및 소매업(0.4억 달러) 순으로 투자
 - 유럽 금융 및 보험업 투자비중 : '09년 3.9%, '10년 0.2%, '11년 16.3%, '12년 3/4분기 0.0%, '12년 4/4분기 0.0%
 - 유럽 제조업 투자비중 : '09년 17.0%, '10년 13.3%, '11년 16.7%, '12년 3/4분기 25.0%, '12년 4/4분기 22.9%
- 주요 투자 사업
 - F사의 네덜란드 금융 및 보험업 투자 : 2.8억 달러
 - I사의 네덜란드 금융 및 보험업 투자 : 1.5억 달러
 - C사의 네덜란드 제조업 투자 : 0.8억 달러

라. 중남미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47.8% 감소한 4.0억 달러, 신규법인수는 12.0% 감소한 22개 기록
- 국가별로는 브라질(1.8억 달러), 멕시코(1.1억 달러), 콜롬비아(0.5억 달러) 순으로, 업종별로는 제조업(2.2억 달러, 비중 54.9%), 광업(1.4억 달러) 순
 - 중남미 제조업 투자비중 : '09년 10.5%, '10년 12.8%, '11년 45.1%, '12년 3/4분기 17.4%, '12년 4/4분기 32.9%
- 주요 투자 사업
 - J사의 브라질 제조업 투자 : 0.9억 달러
 - K사의 멕시코 광업 투자 : 0.9억 달러
 - L사의 브라질 제조업 투자 : 0.6억 달러

마. 기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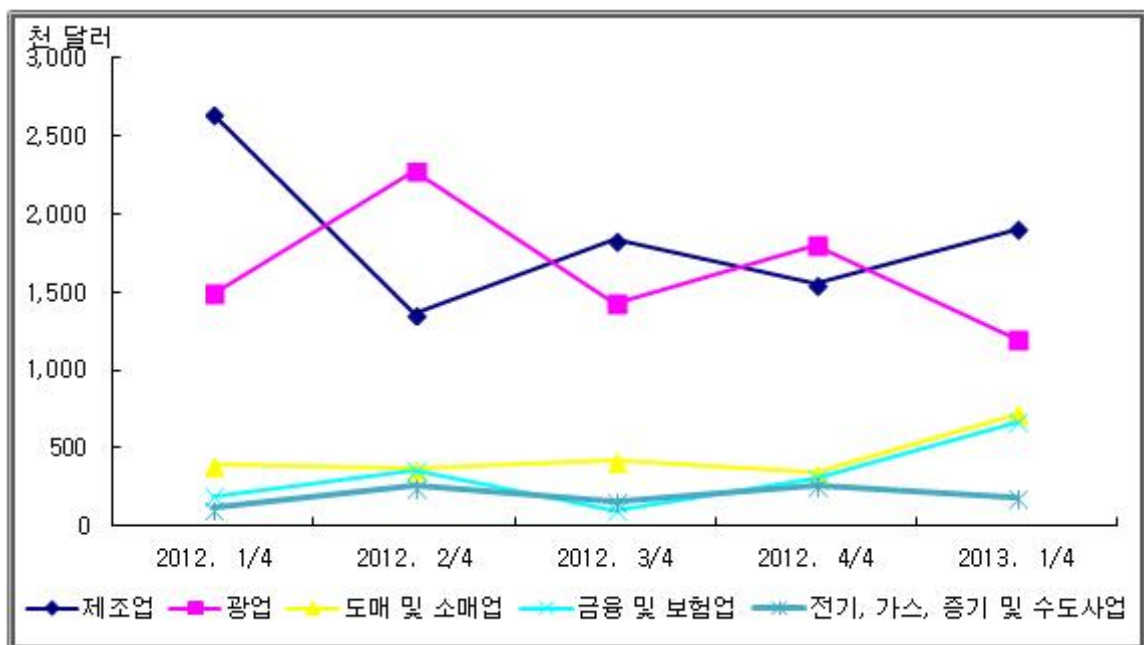
- 전년동기 대비 중동 -37.2%, 아프리카 -43.4%, 대양주 -49.9%의 감소세 시현
- 주요 투자 사업
 - A사의 호주 광업 투자 : 2.3억 달러
 - A사의 이라크 광업 투자 : 0.5억 달러
 - K사의 마다가스카르 광업 투자 : 0.4억 달러

Ⅲ. 업종별 동향

1. 개관

- 전년동기 대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,406.4%, 금융 및 보험업 247.3%, 도매 및 소매업 82.6%,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사업 65.3% 증가, 부동산업 및 임대업 -87.5%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-48.1%, 운수업 -42.5% 등은 감소

<그림 3> 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



- 주요 업종별 투자비중은 제조업이 가장 큰 비중인 35.2%, 광업 22.0%, 도매 및 소매업 13.3%, 금융 및 보험업 12.2%,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사업 3.4% 순
 - 제조업은 중국(7.7억 달러), 싱가포르(1.7억 달러), 브라질(1.6억 달러), 베트남(1.0억 달러), 미국(1.0억 달러) 순, 광업은 미국(3.6억 달러), 호주(2.7억 달러), 미얀마(1.2억 달러), 멕시코(0.9억 달러), 네덜란드(0.6억 달러) 순
 - 제조업 투자비중 : '09년 22.4%, '10년 28.8%, '11년 30.9%, '12년 3/4분기 31.5%, '12년 4/4분기 28.0%
 - 광업 투자비중 : '09년 26.7%, '10년 30.0%, '11년 28.6%, '12년 3/4분기 24.6%, '12년 4/4분기 32.4%

<표 3>

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	2010		2011		2012		2012. 1/4		2013. 1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제조업	7,021	1,120	8,184	1,067	7,384	875	2,637	219	1,905	250
(비중)	28.8%	38.8%	30.9%	38.7%	31.9%	35.4%	43.0%	36.9%	35.2%	38.4%
(증감율)	53.9%	31.9%	16.6%	-4.7%	-9.8%	-18.0%	107.8%	-22.6%	-27.8%	14.2%
광업	7,319	54	7,579	48	6,991	40	1,486	11	1,188	6
(비중)	30.0%	1.9%	28.6%	1.7%	30.2%	1.6%	24.2%	1.9%	22.0%	0.9%
(증감율)	34.3%	-20.6%	3.5%	-11.1%	-7.8%	-16.7%	-44.9%	-15.4%	-20.0%	-45.5%
도매 및 소매업	1,306	680	1,889	612	1,516	595	393	120	717	140
(비중)	5.4%	23.6%	7.1%	22.2%	6.5%	24.1%	6.4%	20.2%	13.3%	21.5%
(증감율)	-27.3%	29.0%	44.7%	-10.0%	-19.7%	-2.8%	-55.4%	-21.1%	82.6%	16.7%
금융 및 보험업	3,273	63	3,602	69	943	42	190	8	661	10
(비중)	13.4%	2.2%	13.6%	2.5%	4.1%	1.7%	3.1%	1.3%	12.2%	1.5%
(증감율)	63.5%	34.0%	10.1%	9.5%	-73.8%	-39.1%	-61.0%	-55.6%	247.3%	25.0%

* 증감율은 전년동기 대비임.

2. 제조업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19.0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7.8% 감소, 신규법인수는 14.2% 증가한 250개 기록
 - 기타운송장비 제조업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전년동기 대비 각각 98.5%, 82.5% 투자 감소가 주요인
- 국가별로 중국(7.7억 달러), 싱가포르(1.7억 달러), 브라질(1.6억 달러), 베트남(1.0억 달러), 미국(1.0억 달러) 순으로, 아시아(13.5억 달러)와 유럽(2.3억 달러) 지역이 각각 70.8%, 11.8% 차지
 - 제조업 총투자액 대비 아시아 지역 투자비중 : '09년 60.1%, '10년 76.3%, '11년 70.8%, '12년 3/4분기 53.3%, '12년 4/4분기 77.3%
 - 제조업 총투자액 대비 유럽 지역 투자비중 : '09년 19.8%, '10년 11.6%, '11년 7.4%, '12년 3/4분기 19.2%, '12년 4/4분기 6.5%
- 투자금액 비중은 35.2%, 신규법인수 비중은 38.4%로, 법인당 투자금액이 업종 평균치에 가까움
- 세부업종별로는 전자부품·컴퓨터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5.9억 달러)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4.3억 달러), 1차 금속 제조업(2.6억 달러), 코크스·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(2.0억 달러)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1.0억 달러)의 순

3. 광업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11.9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0.0% 감소, 신규법인수는 45.5% 감소한 6개 기록
 - 에너지 공기업 투자가 7.5억 달러로 전년동기 12.2억 달러 대비 38.8% 감소
- 국가별로는 미국(3.6억 달러), 호주(2.7억 달러), 미얀마(1.2억 달러), 멕시코(0.9억 달러), 네덜란드(0.6억 달러) 순으로 투자한 가운데 지역별로 북미(3.8억) 및 대양주(2.8억) 지역 투자비중이 각각 31.8%, 23.2% 차지
 - 북미 지역 투자비중 : '09년 55.4%, '10년 17.8%, '11년 42.1%, '12년 3/4분기 27.1%, '12년 4/4분기 37.0%
 - 대양주 지역 투자비중 : '09년 4.7%, '10년 5.5%, '11년 16.7%, '12년 3/4분기 25.4%, '12년 4/4분기 17.1%
- 신규법인수 비중(0.9%)에 비해 투자금액 비중(22.0%)이 상대적으로 큰 바, 법인당 투자규모가 업종 평균 대비 대규모
- 세부 업종별로는 석탄,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(10.6억 달러) 투자비중이 89.0%, 금속 광업(0.7억 달러)이 6.1% 차지

4. 도매 및 소매업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7.2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82.6% 증가, 신규법인수는 16.7% 증가한 140개 기록
 - 소매업(자동차 제외) 투자가 전년동기 대비 578.3% 증가
- 국가별로는 일본(2.9억 달러), 미국(2.4억 달러) 순이며 투자비중은 각각 40.5%, 33.8%
- 세부업종별로는 소매업(5.0억 달러), 도매 및 상품중개업(1.7억 달러) 순

5. 금융 및 보험업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6.6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47.3% 증가, 신규법인수는 25.0% 증가한 10개 기록
 - 투자전문회사의 네덜란드 금융업 투자(4.3억)가 주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
- 지역별로는 유럽(4.6억 달러), 북미(1.2억 달러), 아시아(0.8억 달러) 순으로 투자

IV. 투자기업 규모별 동향

1. 개관

- 금분기 중 대기업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17.1% 감소로 비중이 83.0%에서 78.0%로 감소, 반대로 중소기업 투자는 21.7% 증가하여 비중이 14.9%에서 20.6%로 확대

<표 4>

기업규모별 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*	2010		2011		2012		2012. 1/4		2013. 1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대기업	20,199	393	21,144	380	19,104	327	5,086	76	4,217	101
(비중)	82.9%	13.6%	79.8%	13.8%	82.5%	-8.8%	83.0%	12.8%	78.0%	15.5%
(증가율)	20.6%	37.9%	4.7%	-3.3%	-9.7%	-13.9%	-3.7%	8.6%	-17.1%	32.9%
중소기업	3,646	1,340	4,300	1,302	3,532	1,128	914	287	1,113	322
(비중)	15.0%	46.4%	16.2%	47.2%	15.2%	-8.2%	14.9%	48.3%	20.6%	49.5%
(증가율)	10.1%	13.3%	17.9%	-2.8%	-17.9%	-13.4%	-2.5%	-17.3%	21.7%	12.2%

* 개인 및 개인기업 등 제외

- 대기업의 신규법인수 비중은 15.5%에 불과하나, 신규법인수 대비 투자금액은 대기업(0.4억 달러)이 중소기업(3.5백만 달러) 대비 약 12배

2. 대기업

- 업종별로는 제조업(15.4억 달러, 비중 36.5%), 광업(11.6억 달러), 도매 및 소매업(5.6억 달러) 순
 - 대기업의 제조업 투자비중 : '09년 17.8%, '10년 24.7%, '11년 27.7%, '12년 3/4분기 27.4%, '12년 4/4분기 23.6%
- 지역별로는 아시아(19.2억 달러), 북미(9.6억 달러), 유럽(5.2억 달러) 순

3. 중소기업

- 업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(4.6억 달러, 비중 41.0%), 제조업(3.3억 달러, 비중 30.0%) 순
 - 중소기업의 금융 및 보험업 투자비중 : '09년 2.4%, '10년 3.3%, '11년 11.5%, '12년 3/4분기 1.0%, '12년 4/4분기 3.3%
 - 중소기업의 제조업 투자비중 : '09년 44.1%, '10년 51.5%, '11년 50.6%, '12년 3/4분기 58.8%, '12년 4/4분기 50.0%
- 지역별로는 유럽(4.7억 달러), 아시아(3.9억 달러) 순

V. 기 타

1. 투자규모별

<표 5>

투자규모별 해외직접투자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	2010		2011		2012		2012. 1/4		2013. 1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50만달러 이하	592	2,184	560	2,086	519	1,908	188	482	186	522
~200만달러 이하	1,073	382	1,001	356	946	311	325	60	289	67
~500만달러 이하	1,386	140	1,304	129	1,236	105	390	20	336	23
~1000만달러 이하	1,380	73	1,419	69	1,525	58	503	14	343	10
~5000만달러 이하	4,353	77	5,077	82	4,546	63	1,055	11	1,377	21
1억달러 이하	2,399	13	3,614	15	3,044	11	1,043	3	536	1
1억달러 초과	13,183	18	13,516	23	11,348	15	2,626	4	2,341	7

- 건당 투자규모 1천만 달러 초과~1억 달러 이하 투자 비중이 전년동기 34.2%에서 금분기 35.4%로 증가, 1억 달러 초과 투자 비중도 42.5%에서 43.3%로 소폭 증가

2. 지분율별

- 한국측 지분율 100% 투자 비중은 전년동기 77.6%에서 금분기 75.6%로 감소

<표 6>

지분율별 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	2010		2011		2012		2012. 1/4		2013. 1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10% 미만	312	17	201	14	256	11	79	4	42	3
10% ~ 50% 미만	2,912	393	2,870	362	2,300	270	589	54	548	72
50%	189	103	686	97	681	95	198	29	178	26
50% 초과~ 100% 미만	3,628	253	3,342	233	2,423	195	506	41	552	52
100%	17,324	2,121	19,392	2,054	17,503	1,900	4,757	466	4,089	498